

“ 인터뷰 ”

긴급출동 사이렌에 따라 운전자의 양보 필요



김정호
포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신속한 출동을 위해 운전자들이 양보를 해주지 않아 5분대 현장 도착 구조가 무색해지고 그만큼 화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는 시민의식 제고로 해

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포천소방서 김정호(55·사진) 방호구조과장은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수원으로 이사와 세류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삼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8년 수원소방서에 소방관으로 입문해 현재까지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과장은 방호구조팀, 구급팀, 진압팀으로 구성된 방호구조과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방호구조팀은 화재진압대책에 관한 사항, 소방용수시설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방호일반훈련에 관한 사항, 구조대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구급팀은 구급관련 기획업무와 구급대책회의의 운영, 구급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119구급대원 병원응급실 현장실습, 무선페이징시스템 및 안심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다. 진압팀은 화재현장에서의 지휘 및 진압에 관한 사항과 119수보 상황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 등 응급의료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지리조사에 관한 사항, 화재현장에서의 지휘 및 진압에 관한 사항, 경방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김 과장은 수원소방서, 이천소방서, 안산소방서, 포천소방서에서 소방위로 승진하여 평택소방서, 오산소방서에서 소방경으로 승진해 안성소방서, 수원중부소방서, 군포소방서에서 소방령으로 승진해 포천소방서에 근무하

고 있다.

김 과장은 포천의용소방대원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지역별로 소대원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긴급히 화재가 발생할 때 동원이 잘 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소방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수원이 자택인 김 과장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소방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바라는 사항에 대해 “사이렌 소리에 양보해 주기와 긴급한 환자발생이 집에 차가 있으면 그 차로 이동하지 않고 구급차를 불러 차가 없는 집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출동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가용 없는 집안에 구급차 긴급출동 위해 양보해야

개성인삼축제 10월12~14일 열려

전국 20만명의 관람객 방문 예상

포천시는 개성인삼의 옛 명성을 되찾고 38도선 부근의 인삼재배 최적지에서 생산되는 포천의 대표적 특산물인 개성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포천종합운동장 일원에서 '2007 개성인삼축제'를 개최한다.

이 밖에 포천시 청소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인삼씨앗오르기, OX퀴즈 및 민속놀이마당, 인삼카데일 및 인삼방 만들기, 개성인삼골드벨 등 인삼을 소재로 한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축제 관계자는 포천·연천 등 북위 38°선 상하 9개 시·군에서 재배되는 6년근 인삼을 조적이 치밀하고 향이 두드러지는 우수성을 띠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축제를 통해 개성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인삼산업 부가가치창출의 계기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에서 열리는 2007 개성인삼축제는 포천시와 개성인삼농협이 주최하고 개성인삼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경기도와 한수이북 9개 시·군 인삼작목반, 농협중앙회, 인삼연구회 등이 후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포천을 개성인삼의 원산지로 널리 알림으로써 인삼농업발전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는 개성인삼의 옛 명성을 되찾고 38도선 부근의 인삼재배 최적지에서 생산되는 포천의 대표적 특산물인 개성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포천종합운동장 일원에서 '2007 개성인삼축제'를 개최한다.

제5회 포천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

문화예술부문 이종훈(63세), 교육부문 박경수(62세)
지역사회개발부문 양경희(49세), 체육부문 김희태(55세)



이종훈

박경수

양경희

김희태

포천시는 4일 시청 대강당에서 문화상 심사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포천시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개 부문에서 추천된 11명의 수상후보자를 대상으로 부문별 소위원회 열어 대상자를 확정짓고 후 선제위원회에서 5개부문 중 학술부문을 제외한 4명의 수상자를 결정했다.

문화예술부문에서는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훈(63세)씨가 포천문화원 사무국장으로서 재임하면서 화서학과 학술발표회, 포천한시백일장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과 청년유도회장으로 전통상년식과 포천시유도회 교화부장과 옥병서원 상임이사 재직시 매년 4~10회의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문화관광 해설사로 학생 및 방문객에게 포천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등 약 25년간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교육부문에서는 일동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경수(62세)씨가 일동중학교 운동장 확장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으로 체육시설 확충과 학교 숲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 점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영어체험교실, 영어도서관 운영, 독서논술 교재를 개발하여 전교생을 중점 지도한 점, 제16, 17회 동계체전에서 바이애슬론 종합우승으로 체육부문 발전에 기여한 점, 농촌학교 실력향상을 위해 방과 후 희망교사 및 군장병 멘토링을 통해 공부방을 운영한 등 약 23년간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공로로 수상자로 결정됐다.

지역사회개발부문에서는 총 5명의 후보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여 경북대학 작업치료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양경희(49세)씨가 지역사회 복지발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포천시 장애인 청소년 문화체험, 장애인 골드리 체육대회, KT&G북지재단에서

활동프로그램으로 채택·시행시킨 점, 취약계층 의료재활봉사로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한 점, 포천시 보건소 주관 뇌졸중 주간 재활교실에 참여하여 뇌졸중 장애인 실재조사와 또한 포천시 보건소와 관학협력을 체결하여 지역 사회중심의 재활사업을 실시한 점 등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결정됐다.

체육부문에서는 김희태축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희태(55세)씨가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가의 위상을 높인 점과 스포츠 축구전문해설위원으로 축구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점, 2002년 일동면에서 김희태 축구센터를 개관하여 일동중학교 축구부 공개 선발, 2004년 일동고등학교 축구부창단, 2005년 일동초등학교 축구부를 창단하여 꿈나무 육성에 기여한 점, 2006년 이 동면에서 김희태축구센터를 개관하여 유·청소년에게 선진축구 기술을 체계있게 지도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축구요람의 산실로 포천시의 체육위상을 높인 점 등 지역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9일 제5회 포천시민의 날 행사시 수여할 예정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늘봄 컨벤션센터 오픈

특급호텔급 인테리어 갖추고

늘봄 컨벤션 센터(대표 강욱자)가 특급호텔급으로 3개월간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 9일 오픈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지역사회 인사들을 포함한 강욱자 대표와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 등 1천여명이 찾았다.



늘봄 컨벤션 센터가 특급호텔급으로 3개월간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 9일 오픈했다.

다. 오픈식에 앞서 지역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300여명을 초청해 노인료잔치를 베풀었다.

기존에 있었던 솔모루 웨딩홀을 리모델링하고 오픈한 늘봄 컨벤션 센터는 1천300여평의 넓은 부지에 웨딩홀 좌석 160석, 주차대수 200대, 연회실 96석을 갖추고 있다. 늘봄 컨벤션센터는 오픈 기념으로 결혼식장 무료대여, 돌잔치와 회갑, 친손잔치 손님에게는 샴페인과 케이크, 단체 손님에게는 할아회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에 오픈한 늘봄 컨벤션센터 측은 “특급호텔급으로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혼식을 하는 분들의 품격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오픈 기념으로 기관이나 단체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웰빙 부사의(不思意)

제례(祭禮)와 주다(酒茶)

“차를 마시는 민족은 흥하고 술을 마시는 민족은 망한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선생의 말이다. 차와 술이 지니고 있는 속성(屬性)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차를 마시는 자리에선 ‘롯데무세’를 단정히 하고 ‘정신’을 가다듬는다. 반면 술자리에선 ‘롯데무세’가 흐트러지고 ‘마음’도 흐트러진다. 술과 차가 지니고 있는 ‘속성’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롯데무세가 단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게임(game)’은 애초부터 안 되는 것이다. 롯데무세가 흐트러진 사람이 단정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가?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웃기가 흐트러지고 정신이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차를 마시는 민

‘차를 마시는 민족은 흥하고 술을 마시는 민족은 망한다’

족은 흥하고 술을 마시는 민족은 망한다’는 교훈(敎訓)을 우리에게 준 것이다.

추석(秋夕)이나 새해맞이 같은 큰 명절이 돌아오면 우리는 조상님께 차례(茶禮)를 올린다. 한 해를 돌봐주시는 은혜(恩惠)에 감사하고 풍성한 수확(收穫)을 거두어들이게 해주신데 대해 감사오른다. 차례상에 올리는 술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주(祭酒)로 막걸리를 가장 많이 쓴다. 그런데 이 같은 의식(儀式)을 우리는 ‘주례’라 하지 않고 ‘차례’라고 한다. 왜 그럴까? 술을 올리니 마땅히 ‘주례’라고 해야 할 텐데 주례라 하지 않고 ‘차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제례의식(祭禮儀式)에서 ‘차(茶)’를 올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獻茶)’라는 말도 있는 것이고 ‘철공봉다(撤羹奉茶)’라는 말도 있는 것이다. 철공봉다란 국을 돌리고 차를 올린다는 말이다. 원래는 이처럼 모든 제례(祭禮)에 차(茶)를 올렸었다. 그러던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술로 대체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한제(寒齋) 이목(李穆) 선생의 후손들은 ‘철공봉다’의 의식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차(茶)’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로운을 준다. 정신을 맑게 하고 피를 맑게 하고 기(氣)를 맑게 한다.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차’가 모든 병을 다스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차’를 가리켜 만병지약(萬病之藥)이라고 했다. 특히 현대의학에서 밝히고 있는 카테킨(catechin)이라는 성분은 암을 다스리는 것으로 알려져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차’가 우리에게 주는 약리작용(藥理作用)은 한 톨이 아니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정신’과 ‘피’와 ‘기’를 맑게 해준다는 것이다.

심기혈정신(心氣血精神)이란 말이 있다.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가고 ‘기’가 가는 곳에 피가 흐르며 ‘피’가 흘러야 정이 맑고 ‘정’이 맑아야 ‘신’이 열리니라는 뜻이다. 우선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조상(祖上)을 받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조상’이 있어 내가 있고 ‘조상’의 음덕(陰德)이 있어 오늘의 내가 존재(存在)하는 것이다. ‘나의 노력(努力)’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노력이 있기에 앞서 나를 있게 한 ‘앞선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노력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인연(因緣)’이라고도 하고 ‘응보(應報)’라고도 하는 것이다. 인과응보(因果應報)란 말은 그래서 소중한 것이다.

‘차’의 약리작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작용(精神作用)이다. 우리 선조들은 ‘차를 마시면서 약리작용만 생각한 것이 아니다. 정신작용도 생각했다. ‘차’가 지니고 있는 특성(特性)과 그 성품(性藥)에 의미(意味)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혼사(婚事)가 있을 때 차나무처럼 그 집에 가서 깊숙이 뿌리를 내리라는 뜻으로 봉다(奉茶)를 하고 지조(志操)를 지킨다는 뜻으로 헌다(獻茶)를 한 것이다. 차례(茶禮)에 차를 올려야 하는 이유이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살려야 하는 이유이다. 알아듣기 바란다.



이규임
한국방사직약학회 회장

제3회 건강생활 실천대회 개최

맷돌체조, 웰빙댄스, 민요·가요 공연

포천시 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포천시 여성회관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제2회 건강생활실천대회를 개최했다.

먼저 8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포천시 보건소가 운영하는 ‘어른친구 푸른대학’과 ‘건강실천교실’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버댄스, 맷돌체조, 웰빙댄스, 민요·가

요 공연 등의 경연이 펼쳐졌다. 또 관동지역 및 당포 환자들이 그간 갖고 닦아 온 ‘타이치 체조’를 직접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요, 국악, 사물놀이와 고전무용 공연이 관객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했다.

둘째 날인 9일에는 극단 ‘친구’가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아침 결식 예방,

질병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영양뮤지컬 ‘백설 공주와 마법지팡이’를 공연했다. 한편 포천시는 노인들의 활기찬 문화생활을 위해 어르신 푸른대학을 개설, 민요와 실버댄스, 고전무용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타이치 운동교실을 각종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이동민원실, 25일 관인면 찾아

시민 고충과 불편사항 현장 해결

시민들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포천시 이동민원실’이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인면사무소 주차장 내에 운영된다. 또 3층리 마을회관에서 영농지도상담 및 농기계수리 등이 이루어진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기업, 상수도, 농지 및 산림, 건축, 복지, 환경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상담은 물론, 각종 시정건의, 시

민제안, 생활불편신고 등을 할 수 있다. 이동민원실에서는 또 의료상담과 진료도 이루어진다. 포천시는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한 달에 한 곳씩 운영단을 순회하며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일 해결이 가능한 민원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장기 상담은 물론, 각종 시정건의, 시

민제안, 생활불편신고 등을 할 수 있다. 이동민원실에서는 또 의료상담과 진료도 이루어진다. 포천시는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한 달에 한 곳씩 운영단을 순회하며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일 해결이 가능한 민원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장기 상담은 물론, 각종 시정건의, 시